

종합·해설

■ 민선5기 1년, 주민 참여 행정 살펴보니

脫권위, 소통자치 뿌리 내린다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광주·전남의 지자체들은 소통과 참여를 화두로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주민과 직접 접촉을 통해 과거 권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로, 정책이나 사업 집행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민선 1~4기에 쇠락했던 민원이 민선 5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이들 정책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지자체가 직접 제시하거나 택시운전자들 비롯한 서민들의 복지 분야에도 관심을 갖는 등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姜시장 “현장에 답있다” 매주 주민결정으로

광산구 ‘비정규직 해법’ 전국모델 사례로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간 5기=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행정관청마저 무관심했던 구청 내 기간제 근로자들을 전원이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보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광산구에서 2년 이상 상시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자체사업 34명·보조사업 30명) 64명을 근무평가와 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한 것이다. 또 이들에 대해 하루 일당을 16~21%를 인상하는 등 구청 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대폭

을 받았고 공무원들조차 지나친 ‘개입’이라고 불평을 토로했다. 그러나 묵묵히 1년 동안 해의 출장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곤 매주 계속되면서, 주민에 대한 행정의 태도가 일신한 계기가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원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 실무자들 앞에 두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 공무원이 해명 또는 설명하고 이를 지켜본 시장이 중재안을 내놓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 방식은 ‘높은 의자’를 고집했던 공무원의 어깨를 민원인과 나란히 맞추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까지 시민과의 대화는 45차례 열려 243건의 민원이 논의됐으며 처리되거나 처리중인 민원은 이 중 191건(완료 77건, 추진중 115건)이다. 24건은 수불 불가, 27건은 추진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강 시장은 1년 동안 민원인 724명을 만났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추진중이다. 강진군은 항우들을 대상으로 ‘일일 명예 읍면장제’를, 여수시는 울하반기부터 ‘열린 1000인 시민패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에서 가장 교역화가 심한 지역으로 꼽히는 고흥에서는 3세대 이상 가정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효행 장려금 지원제’를, 강진군도 60세 이상 여성 농업인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산수 등을 가르치는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 교실’을 특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역 내 1413명에 이르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감안해 영어·중국어· 일어 등이 가능한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고 구례군은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이 많은 지역을 특화, ‘백세 나날’을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윈스트라이크 아웃’ 부패 척결 다짐=민선 5기는 공직자 부정부패



6·25 참전 순국 학생 위령제 6·25 한국전쟁 61주년을 앞두고 22일 광주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내 ‘광주·전남 순국 학생위령탑’에서 위령제가 열렸다. 일렬로 도열한 전남대학교 학군단 학생 사이에서 한 참전용사가 분향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법조일원화 2022년 전면 실시

사개특촉 “2013년부터 법조경력 3년 이상돼야 법관 임용”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는 22일 오후 2013년부터 3년 이상의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을 갖춰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경력기준을 10년으로 늘려 이 같은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법조일원화 계획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또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원개혁안을 확정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법조일원화의 2022년 전면 시행에 앞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경력 3년 이상의 법조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력 5년 이상 법조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력 7년 이상 법조인 가운데서 판사가 임용된다. 판사의 임무를 보조하는 로클럭은 법원이 2017년까지는 2년 범위에서, 이후는 3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채용하도록 하되 2020년까지 총정원이 200명 이내가 되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오죽하면 정치원로께서...

여수·완도 비리공무원 ‘윈스트라이크 아웃’

무안 ‘마을방송’·고흥 효행 장려금 ‘눈길’

중요 정책 및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전공청회와 사후설명회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등 시민들의 이해와 의견수렴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현장 속으로=시민패널 운영= 무안군의 경우 ‘마을 일제 방송’ 시스템이나 모든 주민들의 휴대전화로 농림·복지 분야 등의 정보를 전송해주는 시스템을 구축, 분야별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예컨대 마을 회관 확성기에서 “x x 이장입니다. 동네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x x 군수입니다. 마을이 좋으니까요.”라는 소리를 듣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찾아가는 민원실’을 통해 마을을 돌며 가로동이나 농기계 수리를 하거나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복지 증진 및 예산 절감 아이디어 등을 제안한 지역민을 선발, 총 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도

에도 과거에 비해 단호해졌다. 완도, 여수, 강진 등이 부정부패에 관여하거나 연루된 공무원을 바로 처벌하는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말 그대로 단 한 건의 비리를 저질러도 공직을 그만두게 한다는 제도다. 비리를 저질러도 과거 수상경력자 사해해 인사위원회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과는 크게 달랐다. 완도군은 반부패·청렴 실천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 금액의 20배,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여수시는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를 이용한 이권거래 및 알선, 청탁을 하지 않을 것 등 청렴 유지와 실천을 다짐하는 4개항의 행동강령을 준수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해수 前비서관 구속 영장 받침

검찰, 저축은행 사업 인허가 청탁 금품수수 혐의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2일 청와대 정부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차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 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장은 이날 오후 2시에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도착, 금품수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설명하겠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사장은 정부비서관 시절 부산저

“경찰 내사는 현상유지”

靑, 검경논쟁 중단 주문

청와대는 22일 ‘경찰 내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과 관련,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경찰 내사에 대한 합의는 현상 유지”라는 입장을 나타내며 논쟁 종단을 주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경찰 내사는 법을 용어가 아닌 관행”이라며 “경찰 내사는 지금까지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상 유지란 경찰이 내사를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확대해도 안 되고, 검찰 역시 관행인 경찰 내사를 더 제어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에 경찰 내사가 제외된다는 항목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JTB travel agency,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stinations like China, Europe, and the U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promotional offers.